DOI http://dx.doi.org/10.21792/trijpn.2020..90.01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의 서사구조*

- 치유와 판타지의 경계 허물기 -

안 영 희**

『ナミヤ雑貨店の奇蹟』は全世界で1200万部数を突破し、韓国でも発刊した以後、一番多く売れた小説である。このように全世界の読者が感動した理由はファンタージーと癒しという境界を崩したからである。ナミヤ雑貨点は過去と未来の手紙を取り交わす幻想的な空間である。この小説は時間と空間の幻想性を通して読者達を時間旅行させている。

『ナミヤ雑貨店の奇蹟』は絶望を癒す希望の道具として手紙を応用している。なんの優れた能力もない三人の無職の青年の手紙は相談者を慰め、癒し、奇跡を起こす。文章を書くことには自己表現の欲求と癒しの機能がある。この小説で手紙は文章を書く自分自身だけではなく、その相手と読者も癒す。

『ナミヤ雑貨店の奇蹟』は時間と空間の幻想性と手紙という癒しの機能を持った癒しとファンタジー小説で読者を引いている。また、すべての世代が感動する奇跡に対する完璧な構成がある。このような叙述構造が読者たちを感動させる理由になる。

キーワード ： 『ナミヤ雑貨店の奇蹟』、東野圭吾、手紙、幻想性、ファンタジ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편지, 환상성, 판타지)

1. 머리말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리얼리티와 픽션의 경계가 점점 일정한 원

* 이 연구는 2019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 anyounghee21@kmu.ac.kr

칙 없이 임의적이며 희미해진다고 레이먼드 페더만은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티와 픽션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포스트모던 작가들은 현대의 가변적인 리얼리티는 더 이상 19세기 작가들이나 독자들이 중재하거나 경험했던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리얼리티는 수수께끼 같고 불확실해서 소설보다 더 허구적이며, 환상보다 더 환상적인 것이 되었다.[1] 현재 우리의 삶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도 소설보다 더 엽기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설 쓰기가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에 유효한 소설은 기존의 리얼리즘과 순수소설에 도전하고 창의적 상상력으로 우리의 이성보다 비이성을 탐색하는 판타지소설[2]이 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판타지소설은 불확실성과 기존 체제와 관념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독자의 은밀한 욕망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타난 판타지의 요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리얼리티와 픽션에 의문을 던지며 리얼리즘 소설에 도전하는 창의적 상상력으로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이어져 방사능이 유출되는 전후 최악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일본 경찰청(2018년 12월 10일 기준)은 일본의 12개 도도부 현에서 15,897명이 사망, 2,534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했다. 228,863명이 원래 살던 집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3]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자 역사상 최악의 재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다. 아직까지 실종자를 수색중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1년 후인 2012년에 출간된 『나미야

1) 레이먼드 페더만「초소설」http://daesan.or.kr/webzine_read.html?uid=1571&ho=39 (검색일:2020.07.10)

2) 필자는 현실의 리얼리티를 벗어나는 문학을 포괄적으로 환상문학 또는 판타지문학으로 부른다.

3)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https://ko.wikipedia.org/wiki/도호쿠_지방_태평양_해역_지진(검색일:2020.08.05)

잡화점의 기적』은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한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출간된 이후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 책에 열광하며 위로를 받고 있다. 이 텍스트의 어떠한 서사구조로 인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치유를 받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환상성과 치유의 서사구조를 밝힐 것이다. 구체적으로 1)시공간의 환상성과 기적의 재구성, 2)편지를 통한 기적과 치유, 3)판타지와 치유의 경계 허물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현대인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2. 시공간의 환상성과 기적의 재구성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1958년~)의 장편소설로 2011년 4월호에서 2011년 12월호까지 가도카와서점(角川書店)의 월간지 『小説 野性時代』에 연재되어 2012년에 가도카와서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제7회 중앙공론 문예상수상작품이다. 2014년에는 가도카와문고판이 간행되었고 2017년에 영화화되었다. 이 소설은 2012년에 출간된 이후 한 번도 베스트셀러에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전 세계 누적 판매 부수 1,200만 부 돌파하였고 최근 10년간 국내 소설 부문 판매 1위”[4]라는 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8쇄를 찍었다. 일본 미스터리 시장의 거장인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도 고작해야 5쇄를 찍었을 뿐인데 48쇄라니 상상을 초월한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3명의 청년들은 아무

4) 1,200만 권 넘게 팔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책 VS 영화 비교 https://m.blog.naver.com/coupang_kr/221225297156(검색일:2020.07.06) 2012년 12월 19일 국내 번역 출간된 이래 6년 연속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서점가에서 “21세기 가장 경이로운 베스트셀러”(교보문고)라고 불리는 소설이다. ‘2008~2017년,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국내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다.

런 지식도 뛰어난 능력도 없지만 자신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편지가 그 누군가를 구해주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추리소설가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치유와 판타지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작품이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간단한 서평이나 대중미디어와의 관련성을 기술한 기사 및 논문은 많은 편이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른 작품에 비해 학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5] 선행연구는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는 김동혁과 박수현, 윤혜영의 논문이 있다. 먼저, 김동혁은 「소설 속 시공간에 관한 환상성의 역할 고찰-『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중심으로-」[6]에서 소설 속 시공간이 환상이라는 개념과 결합하였을 때 어떤 의미로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가에 대해 밝혔다. 김동혁은 불분명한 인과관계 속 현상을 환상이라고 보았으며 "시간의 균열이 작품의 환상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혁은 시간적 서사를 통해 환상을 일으킨 현실의 명확성과 합리성의 균열을 살펴보았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환상성에 주목하여 시간 서사를 분석하였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김동혁의 환상성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의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편지의 치유 기능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박수현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론-과거와 현재의 시간 축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7]에서 작품 속에 나타난 시간 축 중에서 2012년의 시대배경과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과거와 현재 시간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대배경과 등장인물의 분석으로 끝나고 있어 시공간의 의미 분석이 텍스트를 통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혜영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

5) 윤혜영(201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타난 '온가에시(恩返し)」『한국일본문화학회』『日本文化学報』81, 한국일본문화학회, p.212.

6) 김동혁(2016) 「소설 속 시공간에 관한 환상성의 역할 고찰-『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74, 한민족어문학회, pp.383-405.

7) 박수현(201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론-과거와 현재의 시간 축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5.

타난 '온가에시(恩返し)」에서 보은(온가에시)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보은(온가에시)'이 '온오쿠리'로,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의 '환원'으로 이어지면서 확대되는 것에 주목했다.[8]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보은에 주목한 독창적인 연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설의 서사구조와 편지의 치유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고 한다.

2.1 시공간의 환상성과 기적의 재구성

히가시노 게이고는 에세이에서 "과거의 인간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쓸까?"라는 의문점이 집필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시공을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편지"[9]라고 밝히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는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3명의 청년들은 빈집을 몰래 털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오래된 건물인 나미야 잡화점으로 숨게 된다. 청년들이 숨을 돌리려던 순간 편지 한 통이 문틈으로 떨어진다. 편지 어디에도 수신인의 이름은 없다. 청년들은 불안함과 호기심에 편지를 뜯어 읽는다. 편지는 고민 상담이다. 청년들은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서 우편함에 넣는다. 답장을 보내자 다른 상담 편지들이 도착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은 나미야 잡화점의 비밀을 알게 된다. 나미야 잡화점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것이다.

2.1.1 시간적인 환상성

소설 속 나미야 잡화점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은 나미야 유지가 손자인 슌고에게 자신이 죽고(1980년 9월

8) 윤혜영, 앞의 논문, p.224.

9) 東野圭吾(2020)「特集 東野圭吾 ナミヤ雑貨点の奇跡」『本の旅人』18、角川書店、p.27.

13일 사망) 33년 후에 나미야 잡화점의 상담 창구를 부활시킬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 나미야 잡화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 9월 13일 오전 0시부터 새벽까지 나미야 잡화점의 상담 창구가 부활합니다. 예전에 나미야 잡화점에 상담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셨던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답장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까? 기탄없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처럼 가게 셔터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10]

나미야 유지가 죽은 지 33년 후(2012.9.13.)에 다시 한 번 나미야 잡화점의 상담창구가 부활한다. 3명의 청년들은 나미야 잡화점이 부활했을 때 나미야 잡화점에 들어왔다가 편지에 답장을 하고 나간다. 시간 설정을 보면, 2012년 9월 13일 오전 0시부터 새벽까지 나미야 잡화점 상담창구가 부활한다. 이때 3명의 청년들이 물건을 훔치고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든다. 그리고 그날 새벽 6시까지 고민상담 편지에 답장을 쓴다. 3명의 청년들이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면서 보내는 하룻밤을 이야기로 펼쳐낸 것이다. 그러나 이 하룻밤이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과 환상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을 시간여행으로 이끌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거창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유명 인사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도 누군가의 가능성을 끌어내 줄 수도 있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뜻한 말과 소박한 정성의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설 속 청년들은 아무런 뛰어난 지식도 능력도

---

10) 東野圭吾(2014)『ナミヤ雑貨点の奇跡』角川文庫、p.200.
『九月十三日の午前零時零分から夜明けまでの間、ナミヤ雑貨点の相談口が復活します。そこで、かつて雑貨点に相談をし、回答を得た方々にお願いします。その回答は、貴方の人生にとってどうでしたか。役に立ったでしょうか。それとも役に立たなかったでしょうか。忌憚のない御意見をいただければ幸です。あの時のように、店のシャッターの郵便口に手紙を入れてください。どうかお願いいたします。』

없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전해줌으로써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수많은 감사 인사를 듣게 된다. 3명의 백수 청년들도 남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값싼 물건을 파는 평범한 잡화점도 사랑이 오가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작가는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데 필요한 것은 능력도 자질도 아닌 그저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와 더불어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공간을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다음은 세 명의 청년이 나미야 잡화점이 바깥과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부분이다.

> "이 집의 안과 밖이 시간적으로 따로 노는 거 같아. 시간이 흐르는 방식이 서로 달라. 집 안에서는 긴 시간인데 바깥에 나와 보면 그게 그냥 한순간이야."
>
>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중략)
>
> "이 집에 아무도 접근한 적이 없는데 고헤이의 편지는 사라졌고 달 토끼한테서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왔어. 원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누군가 고헤이의 편지를 가져갔고 그것을 읽은 뒤에 답장을 던져주고 갔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중략)
>
> "내 생각은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 가게 앞 셔터의 우편함과 가게 뒷문의 우유 상자는 과거와 이어져 있어. 과거의 누군가가 그 시대의 나미야 잡화점에 편지를 넣으면, 현재의 지금 이곳으로 편지가 들어와. 거꾸로 이쪽에서 우유 상자에 편지를 넣어주면 과거의 우유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딱 맞아."[11]

---

11) 東野圭吾(2014) 前掲書、pp.42-43.
「この家の中は外では、時間的に隔絶さ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時間の流れ方が違うんだ。ここでの長い時間も、外ではほんの一瞬でしかない。
「はあ? おまえ、何をいってんの」(中略)
「この家には誰も近づいてないはずなのに、幸平の手紙は消えて、ウサギさんからの手紙は届く。本来、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はずだ。じゃあ、こう考えてみたらどうだろう。誰かが幸平の手紙を持ち去り、それを読んでから、次の手紙を

이 소설에서는 1970-80년대와 2012이라는 두 개의 시간이 설정되어 있다. 2012년을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1970-80년대의 사람들과 편지로 소통하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가게 앞 셔터의 우편함과 가게 뒷문의 우유 상자를 통해 전달된 편지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우유 상자는 타임머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타임머신은 과거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상의 장치이다. 이 우유 상자는 4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소통할 수 없는 인물을 편지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시간이동은 인간이 직접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지가 우유 상자라는 타임머신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인물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소설에서 시간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초반 〈나미야 잡화점〉을 운영하는 나미야 유지 씨는 고민 상담에 답장을 한다. 둘째, 1980년 9월 13일에 나미야 씨가 사망한다. 셋째, 나미야 씨가 사망하고 33년 후에 상담창구가 부활한다. 넷째, 이 때 청년들이 나이야 잡화점에 들어온다. 3인조 청년들이 편지로 고민 상담을 해주는 현재의 시간은 2012년 9월 13일 0시에서 6시까지이다. 1970-80년대와 2012년을 시간이동은 상담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드는 편지와 나미야 잡화점이 환상성을 더해주고 있다.

2.1.2 공간적인 환상성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나미야 잡화점의 공간설정이 환상적인 공간으로 설정된다. 나미야 잡화점은 과거와 미래의 편지를 주고받는 공간이다. 편지는 우편함과 우유 상자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다. 과거의 사람들이 우편함으로 편지를 넣으면 3명의 청년이

持ってきている。ところがその誰かの姿が俺たちには見えない」(中略)
「俺の説はこう。シャッターの郵便投入口と牛乳箱は、過去と繋がっている。過去の誰かが、その時代のナミヤ雑貨点に手紙を投げ込むと、現在ここにある店に届く。逆に、こっちが牛乳箱に手紙を入れると、過去の牛乳箱に入ったことになる。どういうわけで、そんなことが起きるのかはわからないけど、そう考えたら説明がつく。

나미야 잡화점에서 그 편지를 읽고 청년들이 우유 상자로 답장을 넣으면 과거의 사람들이 그 답장을 읽는 것이다. 나미야 잡화점에서는 현재의 시간이 흐르고 나미야 잡화점의 바깥은 과거의 시간이 흐른다. 나미야 잡화점에 있는 3명의 청년은 나미야 잡화점에서 우편함과 우유 상자를 통해 편지로 과거의 인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혁은 "환상이 발현되는 공간은 오직 나미야 잡화점뿐이다."라고 한다.[12] 그 다음으로 등장인물과 환광원(마루코엔)과의 관계 설정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은 고아원인 환광원과 연관되어 있다. 환광원은 나미야 할아버지와 설립자 미나즈키 아키코와의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환광원이라는 고아원과 관련성을 가진다.

a. 중학교 2학년이던 와쿠 고스케는 부모와의 불화로 혼자가 되어 환광원이라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다.
b. 가와베 미도리는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미도리는 사망하고 그녀의 아이는 구조되어 '환광원'이라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다.
c. 다섯 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무토 하루미는 이모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환광원으로 보내진다.
d. 위문 공연 차 환광원을 방문한 무명가수 마쓰오카 가쓰로는 화재 발생으로 고립된 한 소년을 살리고 사망한다.
e. 하루미와 와쿠 고스케는 환광원의 화재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한다.
f. 환광원 출신의 세 명의 도둑이 하루미의 별장에 숨어든다.
g. 환광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나즈키 아키코〉라는 대지주의 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녀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미야 유지이다.[13]

환광원의 설립자 미나즈키 아키코는 환광원을 돌보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969년에 운명한다. 여학교 때, 열 살 쯤 많은 한

12) 김동혁(2016) 앞의 논문, p.400.
13) 김동혁(2016) 앞의 논문, pp.401-402.

기계공과 사랑에 빠진다. 부모의 반대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성사되지 못한다. 그리고 둘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한다. 다만 헤어진 지 삼 년 쯤 지난 어느 날, 그 기계공이 아키코의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를 전한 것이 전부이다. 그 기계공이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인 나미야 유지이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은 모두 환광원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였지만 자신들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미나즈키 아키코는 환광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봤으며, 나미야 유지는 고민 상담 편지 창구를 열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위로하였다.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환상적인 공간, 모든 등장인물들이 환광원과 연결되어 있는 환상성과 치밀한 내적 논리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3. 편지를 통한 기적과 치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나미야는 거꾸로 읽으면 나야미(고민)가 된다. 제목에서 이미 나미야 잡화점이 고민 상담 창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상담 편지로 이루어진다.『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총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달 토끼의 고민 상담 편지, 2장은 생선가게 뮤지션의 고민 상담 편지, 3장은 그린 리버의 고민 상담 편지, 4장은 폴 레논의 고민 상담 편지, 5장은 길 잃은 강아지의 고민 상담 편지가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고민에 대한 답장을 나미야 유지와 3명의 청년들이 해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절망을 치유하는 희망의 도구로서 편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편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환상추리 기법을 응용한다. 2012년을 살고 있는 3명의 청년들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 답장을 한다.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인 나미야 유지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한다. 그리고 나미야 유지와 아쓰야의 편지로 과거와 현재 상담자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3명의 청년들은 과거의 시간을 살고 있는 달토끼(기타자와 시즈코, 생선가게 뮤지션(마쓰오카 가쓰로), 길 잃은 강아지(무토 하루미)에게 고민 상담을 해준다.

1) 달 토끼(기타자와 시즈코), 1978년 11월 상담 편지

나미야 씨,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또 답장해 주세요.[14]

올림픽 국가대표인 기타자와 시즈코(달토끼)의 고민 상담이다. 애 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병 간호를 위해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1980년에 개최된 올림픽은 일본이 출전을 거부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는 3명의 청년들은 애인의 옆에서 간호하라는 편지를 보낸다. 하지만 그녀의 애인은 끝까지 올림픽 출전 포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훈련을 열심히 한다. 남자 친구는 떠났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였기에 여한이 없다. 청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비록 달토끼는 3명의 청년들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지만 편지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글쓰기는 자기표현욕구와 동시에 치유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편지의 글쓰기 기능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속도 후련하게 한다. 편지라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위로를 받고 치유를 하는 것이다.

14) 東野圭吾(2014) 前掲書、p.32.
『ナミヤさん、私の悩みに付き合っ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して手紙で打ち明けているだけでも、幾分心が楽になります。答えは自分で出さね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が、何か思いついたことがあれば、お返事ください。』

2) 생선가게 뮤지션(마쓰오카 가쓰로), 1980년 7월 상담 편지

생선가게 뮤지션님께
당신이 음악 외길을 걸어간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래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음악은 틀림없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나미야 잡화점 드림[15]

생선가게 뮤지션인 마쓰오카 가쓰로의 고민 상담이다. 생선가게를 물려받을 것인지 음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3명의 청년은 처음에는 생선가게 뮤지션에게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말린다. 하지만 그가 분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인기가수 미즈하라 세리가 부른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3명의 청년들은 음악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편지 답장을 쓴다. 이에 마쓰오카 가쓰로는 위로를 받고 음악을 계속하다 환광원의 화재로 미즈하라 세리의 남동생을 구하고 죽는다. 그는 죽으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노래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편지를 기억하며 위로를 받는다.

3) 길 잃은 강아지(무토 하루미), 1980년 여름 상담 편지

길 잃은 강아지 님께
자,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경제 관련 공부를 철저히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증권 거래와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 공부를 위해서라면 회사에는 사표를 내고 클럽 일은 계속하는 것도 괜찮아요.[16]

---

15) 東野圭吾(2014) 前掲書、p.130.
『魚屋ミュージシャンさんへ
あなたが音楽の道を進むことは、決してムダにはなりません。あなたの曲によって、救われる人がいると思います。そしてあなたが生み出した音楽は必ず残ります。ナミヤ雑貨点』

16) 東野圭吾(2014) 前掲書、p.344.

19살의 여성인 무토 하루미의 고민 상담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호스티스에 전념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처음에는 3명의 청년들은 무토 하루미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돈이 필요한 상세한 사정을 안 후 진심어린 조언으로 무토 하루미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2012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1980년대 후반의 버블경제와 1990년대 초반의 버블경제 붕괴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토 하루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다. 무토 하루미는 실질적으로 고민상담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상담편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무토 하루미는 상담 편지를 통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인 나미야 유지는 그린 리버(가와베 미도리), 폴레논(와쿠 고스케)에게 고민 상담을 해준다. 그의 진심어린 고민 상담은 상대방을 위로한다.

4) 그린리버(가와베 미도리), 1978년 29세

"남자에게 처자식이 있는데 그런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중략)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영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전에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도무지 애가 들어서지 않아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고 하더란다. 의사가 아이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까지 한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첫 결혼도 실패했나 봐."(중략)

"내가 몇 년째 상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아.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담자 중에는 답장을 받은 뒤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 답장 내용이

『迷える子犬さんへ
さて、あなたが夢をかなえるには何をすればいいか。それは勉強です。そして貯金です。これから五年ほど、経済関連の勉強を徹底的にやってください。具体的には、証券取引と不動産売買です。その勉強のためならば、昼間の会社を辞めるのも仕方がないと思います。その間は、水商売を続けるのもいいでしょう。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17]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한 가와베 미도리가 아이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온다. 나미야 유지는 고민한 결과, 아이를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으면 낳으라고 한다. 오랜 인생을 산 경험자로서의 지혜가 담긴 조언이다. 결국 그린 리버는 아이를 낳고, 그 후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다가 자신은 죽고 아이를 살린다. 자신은 영양실조였지만 딸은 통통했다고 한다. 그린 리버의 딸로부터 나미야 잡화점으로 편지가 도착한다.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웠다는 편지이다.

5) 폴레논(와쿠 고스케), 1972년 중학교 2학년 상담편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해 나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려고 합니다.
빚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갚지 못해 회사가 망해버린 것 같아요.
이달 말일에 아무도 모르게 이 동네를 떠날 예정입니다.
나는 전학을 시켜줄 거래요.
하지만 나는 야반도주를 못하게 하고 싶어요. 빚쟁이는 어디까지든 쫓아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끝도 없이 도망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폴 레논 드림[18]

중학생인 와쿠 고스케의 고민 상담이다. 아버지가 파산해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나미야 유지는 가족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고 따라가기를 권유했지만

17) 東野圭吾(2014) 前掲書、pp.147-150.
18) 東野圭吾(2014) 前掲書、p.226.
『うちの両親は、ぼくを連れて、夜逃げをしようとしています。ものすごくたくさんの借金があって、それが返せず、会社もつぶれるようです。今月末に、こっそりとこの町を出ていくつもりです。ぼくには転校しろといいます。ぼくは何かとして、やめさせたいです。借金取りは、どこまでも追いかけてくると聞きました。いつまでも逃げ回らなくてはならない生活になりそうでこわいです。ぼく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ポール・レノンより』

폴 레논은 가족으로부터 도망한다. 결국 아들을 잃은 부모는 목숨을 끊는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폴 레논은 나미야 유지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부모의 명복을 빈다.

다음은 3명의 청년 중의 한 명인 아쓰야가 보낸 빈 백지편지에 대 한 나미야 유지의 답장이다.

> 이름 없는 분에게
> 어렵게 백지 편지를 보내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중략)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곤란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지요.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해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나미야 잡화점 드림[19]

여기서는 나미야 유지가 상담편지의 답장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

19) 東野圭吾(2014) 前掲書、pp.412-413.
『さて、名無しの権兵衛さんへ』わざわざ白紙をくださった理由を爺さんなりに熟考いたしました。(中略) 私のところへ悩みの相談を持ち込んでくる方を迷子に喩えますと、多くの場合、地図は持っているが見ようとしない、あるいは自分のいる位置がわからない、という状態です。でもおそらくあなたは、そのどちらでもないですね。あなたの地図は、まだ白紙なのです。だから目的地を決めようにも、道がどこにあるかさえもわからないという状態なのです。地図が白紙で困って当然です。誰だって途方に暮れます。だけど、見方を変えてみてください。白紙なのだから、どんな地図だって描けます。すべてあなた次第なのです。何もかもが自由で、可能性は無限に広がっています。これ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どうか自分を信じて、その人生を悔いなく燃やし尽くされることを心より祈っております。

은 고민을 하는 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빈 백지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백지 편지를 보낸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나미야 유지는 백지 편지의 주인이 인생의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인생을 여한 없이 살라는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읽은 아쓰야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 편지로 아쓰야는 위로를 받고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1) 2) 3)은 3명의 청년들이 고민 상담에 대한 답장 편지이고 4)5)는 나미야 유지의 고민 상담에 대한 답장 편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 아쓰야의 백지 편지에 과거를 살고 있는 나미야 유지의 답장이다. 과거와 현재 고민상담자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고민 상담의 주인공에 대한 나미야 유지와 청년의 답장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세 청년은 현재 모두 백수이며 꿈을 잃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아쓰야는 근처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대기업에서 신형 부품을 주문했으나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설계도를 잘못 만들어 그대로 했다가 불량품을 만들어 그 책임을 떠맡게 되어 해고당한다. 쇼타는 가전제품 판매직에서 일하다 단순한 인원감축으로 해고되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고헤이는 자동차 수리공이었으나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다. 이들 청년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져 환광원이라는 고아원에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쓴 편지가 상담자의 고민을 해결해주게 되고 기적을 만들어주게 된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청년들이지만 그들의 진심어린 충고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의 패배자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꽤 흡입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와 기적은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공간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치유를 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희망과 절망은 양면적이다. 사람들이 절망하여 자살하는 이유는 이웃들과 친구들의 무관심이라고 한다. 절망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건네는 편지나 희망의 말은 치유의 명약이 된다. 무관심하게 내뱉

은 말은 독약이 되어 상대방의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다. 많은 고민 상담자들은 나미야 잡화점에서 보낸 답장에서 용기를 얻고 스스로 답을 찾는다.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유지는 상담자들은 각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자신의 답에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민상담자는 편지를 통해 자기표현욕구와 치유효과를 얻는 것이다. 결국 타인의 언어가 가진 마력은 대단하다. 절망하는 타인에게 진심어린 충고는 때로는 기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4. 판타지와 치유의 경계 허물기

지금까지 판타지문학은 주류문학으로부터 제외되었으며 침묵 당하고 억눌려 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젊은 세대들은 순수문학을 거부하고 판타지문학을 찾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1980년대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기성세대의 리얼리즘으로 박탈당했던 환상세계의 대한 젊은 세대의 동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 지금 왜 판타지문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판타지문학은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의 불확실성과 재현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과 긴밀한 연관관계”[20]를 가지고 있다. 언어와 그 언어가 지시하는 리얼리티의 관계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작가들은 리얼리티의 또 다른 측면인 환상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음은 랩킨과 게리 K 울프, 톨킨의 환상문학에 대한 정의이다.

> 1) 환상적인 것은(the fantastic)은 문학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만일 그러한 속성이 작품에 중심적 구도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한 일련의 작품들을 장르인 환상문학(Fantasy)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랩킨)

20) 레이먼드 페더만「초소설」, 앞의 자료.

> 2) 환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합의된 리얼리티로부터 벗어날 때 성립된다.(게리 K 울프)
> 3) 합의된 리얼리티를 벗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2차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2차 세계는 나름의 내적 리얼리티, 즉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톨킨)[21]

여기서 환상문학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합의된 리얼리티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 세계는 나름의 내적 리얼리티와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일반적인 시공간과 벗어나고 있고 나름의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상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상문학 서설』에서 츠베탕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이 현실과 상상세계를 구분 짓던 19세기의 형이상학에 대해 반기를 들고 19세기 실증주의 자격지심의 한 독특한 표현이었으며 실증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한다. 주인공이 경험한 괴이한 사건이 결코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물이 제시되었을 때 독서의 환상적 효과는 극대화된다. 있음직하지 않은 그 모든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 현실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게 만드는 실증적 증거가 이야기의 사실성을 담보해주어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도 독자에게 판단 불가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문학의 글쓰기 유희는 물리세계와 초자연적 세계 사이의 단절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정신이 점점 더 유물론적 실증주의로 굳어져 가는 것에 대한 회의의 발로로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세계와 마주한 주체가 겪는 환상적 경험을 자신의 심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외부세계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현실에 결부시키며, 현실과 비현실의 허물어진 경계를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9세기식 형이상학적 틀이 인간 정신에 가하던 억압이 제거되면서 현대인은 환상적 경험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인다.[22]

대중에게 사랑받는 판타지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환상성이다. 판

---

21) 황병하 「환상문학과 한국문학」http://www.latin21.com/board3/bbs_view.php?table=theory_fh&bd_idx=6(검색일:2020.08.06)

22) 츠베탕 토도로프 저・최애영 역(2013)『환상문학 서설』일월서각, pp.344-345.

타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거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는다. 현실을 초월하는 환상적인 설정과 인물들에 대중들은 열광하고 주인공의 모험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환상성은 오직 나마야 잡화점이라는 공간뿐이다. 등장인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모험을 하지도 않는다. 고민상담자로서 부적한 점이 많은 백수 젊은이이다. 이수경은 『판타지문학의 비밀』에서 판타지문학을 치유와 성장의 문학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모험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현실로 되돌아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2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판타지소설의 환상성보다는 치유에 역점을 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판타지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환상성이라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는 치유를 위해 환상적인 공간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판타지소설의 경계를 허물고 치유와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로 편입된다고 할 수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치유와 판타지〉라는 소설로 독자들을 판타지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현대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다. 미숙하고 결점 투성이인 백수 신세의 젊은 청년이 고민 상담을 한다. 일반적으로 고민 상담은 권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 상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결점 투성이 젊은이가 고민 상담을 해주고 그 상대방은 그 고민 상담에 감동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시공간을 통해서 오가는 편지는 추리소설의 경계를 허물고 〈힐링과 판타지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편입된다.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소설은 모든 세대를 뭉클한 감동에 빠뜨리는 기적에 대한 완벽한 구성이 있다. 그 구성에는 나미야 잡화점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의 환상성과 시공간을 이동하는 편

23) 이수경(2018) 『판타지문학의 비밀』 중앙미디어북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4261220(검색일:2020.08.10)

지가 있다. 이 편지라는 글쓰기를 통해 등장인물인 아쓰야, 고헤이, 쇼타라는 자존감이 낮은 인물은 자존감을 높이며 자기자신을 치유한다. 또한 그들이 보낸 진심어린 편지는 달토끼, 생선가게 뮤지션, 길 잃은 강아지에게 치유를 해주고 기적을 선사한다. 그리고 나미야 유지의 고민상담 편지는 많은 등장인물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답을 제시하고 치유를 해준다. 글쓰는 행위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울증의 치료로 글쓰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고민상담 편지는 등장인물과 독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공간의 환상성과 편지의 치유 기능이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찾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추리소설가였던 히가시노 게이고는 기본적으로 살인사건이나 악의를 묘사할 때도 인간의 선량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환상추리기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 소설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고 한국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시공간의 환상성으로 인한 기적의 완벽한 구성과 편지를 통한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판타지와 치유를 융합한 이 소설은 환상과 치유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5. 마무리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발간된 이후 전 세계 1200만부를 돌파하고 한국에서도 발간된 이후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다. 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에 빠트린 이유는 판타지와 힐링이라는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시공간의 환상성을 통해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나미야 잡화점의 우편함과 우유 상자를 통해 나미야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1970-80년대라는 과거와 3명의 청년이 살고 있는 2012년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을 편지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우유 상자는 타임머신의 기능을 하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은 과거와 미래의 편지를 주고받은 환상적인 공간으로 설

정되어 있다. 모든 등장인물은 환광원이라는 고아원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시공간의 환상성은 우리 삶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는 리얼리즘 소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티와 픽션 사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판타지소설은 기존 리얼리즘 소설에 도전하고 창의적 상상력으로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환상성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기존체제와 관념의 전복이라는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원자력유출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9년에 지났지만 일본 전역에 피난생활을 하는 사람은 4만7천737명에 달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2012년에 나온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생존자,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였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보잘것 없는 3명의 백수 청년들은 아무런 지식도 뛰어난 능력도 없지만 자신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이 그 누군가를 구해주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보낸 고민상담 편지에서 그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이 청년들을 통해 인생의 패배자도 삶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3명의 젊은이들을 통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은 삶의 위로를 받고 치유할 수 있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시공간의 환상성과 더불어 편지를 통한 치유기능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절망을 치유하는 희망의 도구로서 편지를 응용하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 주인인 나미야 유지의 고민 상담에 대한 진심어린 답장은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그린리버와 폴레논의 고민상담에 대한 답장과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3명의 청년 중 한 명인 아쓰야의 백지편지에 대한 답장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독자들까지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또한 아무런 뛰어난 능력도 없는 3명의 백수 청년의 상담편지 답장은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기적을 일으킨

다. 고민상담자는 비록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편지라는 글쓰기 기능을 통해 속이 후련해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것 자체에 치유의 기능이 있다. 편지는 글을 쓰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치유하고 독자들도 편지로 치유를 한다.

이처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시공간의 환상성과 편지를 통한 치유라는 힐링 판타지소설로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모든 세대를 뭉클한 감동에 빠뜨리는 기적에 대한 완벽한 구성이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가 수많은 독자들은 감동시키는 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김동혁(2016)「소설 속 시공간에 관한 환상성의 역할 고찰-『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74, 한민족어문학회, pp.383-405.
박수현(2019)『『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론-과거와 현재의 시간축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5.
윤혜영(2019)「『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타난 '온가에시(恩返し)」『日本文化学報』81, 한국일본문화학회, p.212, p.214.
츠베탕 토도로프 저・최애영 역(2013)『환상문학 서설』일월서각, pp.344-345.
히가시노 게이고 저・양윤옥 역(2012)『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현대문학, pp.1-455.

東野圭吾(2014)『ナミヤ雑貨点の奇跡』角川文庫、pp.1-413.
_____(2020)「特集 東野圭吾 ナミヤ雑貨点の奇跡」『本の旅人』18、角川書店、p.27.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https://ko.wikipedia.org/wiki/도호쿠_지방_태평양_해역_지진(검색일:2020.08.05)
레이먼드 페더만 「초소설」 http://daesan.or.kr/webzine_read.html?uid=1571&ho=39(검색일:2020.07.10)
이수경(2018)『판타지문학의 비밀』중앙미디어북스 https://www.aladin.co.kr/ shop/wproduct.aspx?ItemId=174261220(검색일:2020.08.10)
1,200만 권 넘게 팔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책 VS 영화 비교 https://m.blog.naver.com/coupang_kr/221225297156(검색일:2020.07.06)
황병하「환상문학과 한국문학」http://www.latin21.com/board3/bbs_view.php?table=theory_fh&bd_idx=6(검색일:2020.08.06)

〈Abstract〉

The Narrative Structure of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 Cancellation of the Boundary between Healing and Fantasy -

An, Young-Hee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has sold over 12 million copies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one of the best-selling novels in Korea. The reason why the novel made a number of readers in the world moved is that it destroyed the boundary between fantasy and healing. The Namiya General Store serves as a mystical space where past and future letters are exchanged. This novel makes the readers travel across time through temporal and spatial fantasticality.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features letters as a tool to soothe despair. Letters from three banal unemployed young persons soothe consulters and make miracles. To write passages represents the desire of self-expression and the function of soothing. In this novel, letters soothe not only the writers themselves but also the consulters.

Temporal and spatial fantasticality and the soothing function of letters, portrayed in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attract a number of readers. Furthermore, the novel has the flawless structure of miracles which makes people from every generation touched. This epic structure is what makes the readers moved.

Key words: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Keigo Higashino, letter, fantasticality, fantasy

투 고 일 : 2020년 07월 11일
심 사 일 : 2020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05일